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 - 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기승전결(起承轉結) 구도로서의 ‘성화의 서정(序程)’ 분석: 〈법정적 심판-인간의 타락상-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신조의 사람〉

III. ‘신조의 사람’과 관련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의 관점

1. ‘신조의 사람’, 그 내연의 관점 분석
2. ‘신조의 사람’, 그 외연의 관점 분석: 기독교윤리 실천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5>

• ABSTRACT •

An Analysis of Rev. Gi-Pung Lee's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Focusing on His "New Man"(1922)

Adjunct Prof.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Rev. Gi-Pung Lee's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in his "New Man". This text is based on Ephesians 4:22-24. Lee's view of sanctification is based solely on his work "New Man" published in *Jonggyogyeyoi Jemyeongsa Gangyeonjip*(1922)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ey concepts of Gi-Pung Lee's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ttempted to study the order of sanctification based on his diagrammatic argument, focusing 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① forensic judgment→② human's fall and corruption→③ the high-prophetic office of Jesus Christ→④ new man>. Second, I treated with Lee's view of the new(καινός) man based on Ephesians 4:22-24. I concentrated on practical paradigms for five elements as 'internal combustion' and five fruits as 'external extension'. Lee laid great emphasis on the mutual consistency of five elements and five fruits. In addition, I suggest future extensions of this research into Rev. Gi-Pung Lee's other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such as 'his faith and sanctification', 'his teaching and sanctification', and 'his devotional life and sanctification.'

Key words: Gi-Pung Lee, "New Man", Sanctification, Christian Ethics, Repentance, 'Internal Combustion' & 'External Extension'

I. 들어가는 말

1907 7
 10 (李基豊, 1865-1942) 1922
 『宗教界諸名士講演集』¹⁾ “新造 人”²⁾

“新造 人”

1919

(組合教會)

4 14 “時局運動宣言”

『宗教界諸名士講演集』 20

1) 『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1-242().

2) “新造 人,”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23-134.

3) cf. 『 (金弼秀) 』(: , 1998), 382-384;

“ (金弼秀) : ‘球上無比 記念’(1922)

,” 「 」 24 (2019), 253.

1921 10
 . 1922 , 1924 , 1931
 , 1934 . 1936
 (南次郎)
 . 1938 , , ,
 .
 3 1942 6
 . 6)
 “新造 人”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922 ()
 (壽松洞) (活文社書店)
 . 1921 7)
 (4) “序”(1921 7 13)
 “自序”(壬戌之春三月) .
 ‘大正 十一年’(1922) . “新造
 人” “只今
 一千九百二十二年 前”8)
 3 1922 .
 (YMCA) 『青年』
 20 . 9)

6) , 『 (12)』(: , 1993),
 1093. ‘ , ; , 『 (: , 1994), 45-77;
 , 『 (: , 1999), 46-53.
 7) , 『 (: , 1986), 69.
 8) , “新造 人,” 124.

242

, (公平洞) (大東印刷株式會社)
社) , 80 (錢) .
“新造 人”

‘順天郡長老教會牧師’

4 22 24 10)

”(1994)

(入島)

11)

』(1994)

12)

”(2000)

13)

100 (1907-1956)”(2007)

1907

1956

9) YMCA 「青年」, 『宗教界諸名士講演集』
“責任 自覺” , “責任 自覺,”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14. (臨席)

10) “

”(4:22-24,)

11) , “ ” 「 」 3 (1994), 241-258.

12) , 『 』, 45-77.

13) , “ ” 「 」 28 (2000),
173-191.

, 14) “
: ”(2013)
(入島) ‘ ’

‘ ’, 15)
“新造 人”
〈
(起承轉結) ‘ ’ 〉, 〈
, ‘ (內燃) ‘ (外延) 〉

, “新造 人” 1922

14) , “ 100 (1907-1956),” 「 19 (2007), 13-65.

15) , “ : ” 「 39 (2013), 181-208.

II. 기승전결(起承轉結) 구도로서의 ‘성화의 서정(序程)’ 분석: <법정적 심판-인간의 타락상-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 직-신조의 사람>

“新造 人”

1907

1

“新造 人” ‘(order of sanctification)

< (forensic judgment)→

→

→

→

>

, ‘(起)

(Martin Luther)

(Philip

Melanchthon)

(forensic justification)¹⁶⁾

16) (Augustine)

‘imparted righteousness’

‘imputed righteousness’

(imputation)

(passive righteousness)

) .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84. cf. Philip Melanchthon, *Commentary on Romans*, trans.

創世記 六章을 보면 十一節도 十三節까지 하나님께서 이 世上에 만드러하신 사름이 漸漸 惡하게 되어 다 道를 거역하고 暴行함이 極度에 니른故로(이르렀기에-연구자 주) 하나님은 큰 洪水로써 「노아」의 여들 食口 外에는 世界의 表面에서 모든 사름을 다 滅亡식히다는 것을 記錄하였습시다. 이 洪水가 잇슨 것은 모든 學者 歷史家도 疑心하지 안는 바입니다.¹⁷⁾

(選民)

“世界 表面 滅亡”¹⁸⁾

(夏)

(善君) ‘禹 君’(夏禹 禹王)

¹⁹⁾

‘(承)

Fred Kramer(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71-73.

17) , “新造 人,” 123.

18)

19)

雜草

”20)

“庭園

6

’(the covenant of preservation)

21)

?

하느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自己의 目的에 背反하야 風俗은 어즈러워지며
亂暴한 行動만 하는 故로 忿怒하사 滅亡식히기로 生覺을 하였습니다. 그러하

20) , 129.

21)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2), 109-125.

지마는 여들 사름은 救援을 었어습니다. 그 여들 사름이 다 착흔 사름은 아니 었습니다. 創世記 九章 二十一節에 「노아가 葡萄酒를 마시고 醉흐야 발가벗고 帳幕 안에 누엇더니」란 말이 잇습니다. 그 后 「노아」의 여들 사름으로브터 사름이 繁殖함을 썩라셔 그 사름들이 썩 惡하게 되엿습니다.²²⁾

(牛耳讀經- ”)²³⁾

.²⁴⁾

.²⁵⁾

‘ ’(轉)

(great prophetic office)

22) , 123-124.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trans. Ford 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 3:2(291).

23) , “新造 人,” 124.

24) , 123.

25) . “ 自己 目的() ”

(神託)

(Louis Berkhof)

26)

“ 先知者 盡力
 生命 (-)
 (-) ”27)

28) ,

孔子에게는 三千 弟子가 잇섯다 흥며 釋迦에게는 五百 羅漢이 잇섯습니다.

2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358.

27) , “新造 人,” 124.

28) , 123.

Berkhof, *Systematic Theology*, 359.

「소크라테스」에게도 弟子가 만히 잇섯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만 열둘뿐이 엿습니다. (중략) 三年 동안에 다만 열흔 사람(가롯 유다 제외-본 연주자 주) 뿐이올시다. 엿지햐야 예수는 그러흔 일을 헝섯슴닛가? 그곳이 大先知者가 되시는 理由인故로 잘 生覺햐야 흘 것입니다.²⁹⁾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사람을 后年 大事(복음의 보편화-연구자 주)에 教養을 헝신 것입니다. 이 外에 女 弟子와 또 門徒들이 잇서서 漸漸 예수가 이 世上을 떠나시랴 흘 卍에는 百二十人의 弟子가 잇섯습니다.³⁰⁾

, ‘ ’(結)

.³¹⁾

4 24

(入信)

(Cornelius Van Til)

(imago

Dei)

,³²⁾

29) , “新造 人,” 126.

30) , 126-127.

31) , “ ” 「 」 33 (2015), 397.

32)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13.

.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190-191.

33) 『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4
 34)
 (Herman Bavinck)

35) (John Calvin)

36)
 ,
 ‘ (new man)
 (Gerhard Kittel)

『 (T. D. N. T.)

(καλός)

(νέος)

‘ (new)

(new in nature)

37)

(positional righteousness)

33) Louis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 (:
 , 1991), 87.

34) Westminster Assemb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oki's Publishing(April
 16, 2013), 4:2.

35) Herman Bavinck, *Magnalia Dei*, 『 (:
 , 1999), 204.

3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II, 2:12(270-271).

37) Gerhard Kittel, *T. D. N. T.(III)*, trans.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447.

(practical righteousness)

(criterion)

①
②
③
④

예수는 마태福音 十一章 二十八節에 「受苦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便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나를 뵈호라(배우라-연구자 주) 나를 본밧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밧을 것입니다.³⁸⁾

오늘 問題인 「새로 된 사람」 엇든 사람을 「新人」이라 하겠습닛가? 하나님의 眞理를 듯고 悔改 하는 사람입니다. 只수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냐? 업는가? 계시다 홀지라도 別노히(별로-연구자 주) 그 하나님의 依賴 하지 안어도 玆타(좋다-연구자 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써 依賴 한다는 態度로 變하엿습니다.³⁹⁾

이 聖潔이란 것은 悔改하고서 淸로히(새롭게-연구자 주) 된다는 뜻인데 맞치 사다다리를 올라가는 것 긋치 扃을 올라갓다는 뜻입니다. 聖潔이란 뜻은 漸漸 예수 그리스도와 긋치 된다는 것(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연구자 주)입니다.⁴⁰⁾

38) , “新造 人,” 130.

39) , 128.

40) , 1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신조의 사람’과 관련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의 관점

‘ ’

(慧眼)

‘ - ’

,

41)

(滿開)

41) 『教會 民族』(: , 1981), 117; 『歷史 信仰』(: , 1998), 82, 140.

.42) , 1919

.43)

#ž †
#fi / fi ”

‘(承)

.44)

42)

, “ , ” 「 」 18 (2004), . cf. 183.

43) , 『 (: , 1997), 56, 59.

45)

46)

“

”47)

(simul justus et peccator)

“新造 人”

(神前意識)

44) 2 “ ” (承)

45) “ ” 「 」 21 (2007), 162.

4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3:10-11(602-603).

“ ” 「 」 17 (2003), 62.

47) Martin Luther, *Lectures on Romans*, trans. Wilhelm Pauck(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124.

.48)

(神)

.49)

50)

(Καρδιά)

(獨白)

.51)

.52)

,53)

.54)

48) , “新造 人,” 125. cf. 3:12-14.

49) , 『 』(: , 1987), 673. ‘

5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 組織神學: 序論』(: , 1985), 180-181.

51) , “新造 人,” 128.

52) , 131, 133.

5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III, 3:6(598).

54) , III, 3:14(607).

(Billy Sunday,
MLB) , 1920
55)

『아메리카』의 「윌리 샌디」(Billy Sunday-연구자 주)라 하는 사람은 『빌나 델비아』에서 大說教를 해야 몇 百萬이란 만흔 사람이 와서 듯고 몇 萬名의 悔改하는 사람이 있겠다 흡되다. 數자로 말하면 그리스도 以上입니다. 오늘 우리 朝鮮에도 하로에(하루 동안에-연구자 주) 몇 萬名 式 모혀서 몇 百名의 病者가 按手祈禱에 病을 낮게 하는 金益斗 牧師 又흔 이도 있습니다. 大端히 感謝하고 고마운 일이올시다. (중략) 그런데 그 몇 만 몇 천(몇 만 몇 천-연구자 주)이란 사람은 果然 眞實히 病을 곳침을 맞으며 悔改를 하며 信者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쫓 흡닛가? 至極이 적을 것입니다.⁵⁶⁾

「바울」도 사람을 만드는 디는 實노 衰를 만히 씻습니다. 三十 몇 年 동안 衰를 씻습니다. 그리하여 이만하면 훌륭흔 人格이라 然則 「바울」의 旅行(타

55) , 1919 ‘ ’ 3
1923
2 1 , “ ”
, 『 』(: , 2000),
399.

56) , “新造 人,” 127.

지역 선교사역-연구자 주) 中에 맞음이 漸漸 식어지고 탐니다. 이만하면 教會에 青年會에 主日學校에 主 礎石이 되리라 하면 그 사름이 얼마 되지 못하야 罪를 犯하고 教會의 일흠(이름-연구자 주)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갓흔 일노(이 같은 일로-연구자 주) 「바울」은 맺 番을 울었습니다. 그를 爲하야 여러 番 病이 나섰습니다. 實노 사름들을 新造하는 것이 어려운 것(어려운 것-연구자 주)은 우리가 可히 生覺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⁵⁷⁾

57) , 128.

58) , “ - ,” 「

」 49 (2018), 8.

Sfi / fi ”

‘ ,

. ,

,

, ,

, .

.

.59)

(求心點)

自己는 었든 개썩다귀로 소썩다귀로 되엿는지 알지 못헌다는 사름이 나는 하느님의 形像티로 지으심을 밧은 하느님의 子女라는 것을 自覺호고 自己가 自己를 尊重호다는 態度로 變호야 (중략) 우리는 하느님의 子女 우리는 四海가 다 兄弟姊妹라 갓가온 親戚又혼 生覺으로 사름들의게 對호 態度가 變호 것입니다. (중략) 實노 罪를 犯호 것이 비암(뵘-연구자 주)을 실어호는 것 긋치 실어호며 只수까지는 「아야」 호고 嘆息만 호든 사름이 큰 希望을 가지고 (중략) 后 世上(내세-연구자 주)에는 하느님 나라에서 永生을 엿을 故로 希望이 가득호며 淸滿호 것이다. 그와 긋치 淸음이 變호 겠습니다. 그것이 悔改라 호는 것(즉 회개의 산물-연구자 주)입니다.⁶⁰⁾

59)

,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II, 3:6(297).

60) , “新造 人,” 128-129.

4 24

‘義 眞理 聖潔

者’⁶¹⁾

?

\$Z

†

4 24

61) , 131.

“朝鮮 國民 世界”⁶²⁾
 “朝鮮 國民 世界”⁶³⁾

“朝鮮 國民 世界”⁶⁴⁾

“朝鮮 國民 世界”⁶⁵⁾

“朝鮮 國民 世界”⁶⁶⁾

62) , 132.

63) , 131.

64) , 133.

65) , 132.

66) , 133. (淨化) “ 聖神 各
 臨在 漸漸 (-) ”

, 131.

“ :
 ” 「 」

’
 . “ 對 盡力
 ”(67)
 , (義忿)

. (68)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① , ②
 , ③ , ④ , ⑤

IV. 나가는 말

1922 『宗教界諸名士講演集』

“新造 人”

67) , “新造 人,” 133.

68) , 134.

’ . cf. ,
 “ - (Homo Ultor) (Homo Ignocense) -,”
 「 」 28 2 (2014), 17.

0

“新造 人”

1920

(皇國)

69)

to believe)

”(what

“

”(how to live)

70)

69) , “ (鄭景玉) (實用主義) ; ” 「 」 43 (2019), 156.

70) , 『 (: , 2010), 671-672; , “ , ” 「 」 39 (2014), 141.

. 71)

. 72)

,

. “新造 人”

71) , “ 德, ?
(2000), 219.

72) , “
(2013), 41-42.

?” 「 」 3

,” 「 」 25

참고문헌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2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집(1994), 241-258.
- 문시영. “기독교와 , 공로주의인가? 윤리적 전통인가?” 『기독교사회윤리』 제3집(2000), 197-219.
- 민경배. 『 와 』.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_____. 『 와 』.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9집(2013), 181-208.
-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13-65.
-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제28집(2000), 173-191.
- _____.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21집(2007), 153-178.
- 세계철학대사전편집위원회 편.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 심금식.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생애』. 서울: 영문, 1994.
-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39-180.
- _____. “김필수() 목사의 성찬관 분석: 그의 ‘ 의 ’(1922)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제24호(2019), 251-174.
- _____. “정경욱()의 실용주의()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2019), 153-187.
- 양신혜. “베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갱신과 부흥』 제24호(2019), 85-114.

- 유태주.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해.” 『신학과 사회』 제18집 (2004), 143-187.
- 이기풍. “의 .” 한석원 편. 『 . : , 1922), 123-134.
-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5집(2013), 31-63.
- 이종록. “회개, 그 다양한 표현들.” 『신학과 사회』 제17집(2003), 45-66.
- 이종원. “용서의 윤리-호모 울토르(Homo Ultor)에서 호모 이그노센스(Homo Ignocense)로-.” 『신학과 사회』 제28집 2호(2014), 9-38.
- 장기영. “루터의 성화의 장치: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 메시지 왜곡에 대한 종교개혁자의 교정.”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7집(2017), 245-283.
- 정병식.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적 접점 연구-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9집(2018), 7-43.
-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 한석원 편. 『 . : , 1922.
- 한석원. “의 .” 한석원 편. 『 . : , 1922.
- 홍순원. “인격과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악의 구조성.”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 (2015), 379-405.
-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테일회)』. 1908 10 , 1-14.
- Bavinck, Herman.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Louis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박수준 역. 『기독교교리요약』.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1.
- _____.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뵘콕 : 』.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Kittel, Gerhard. *T. D. N. T.(III)*.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Luther, Martin. *Lectures on Romans*, trans. Wilhelm Pauc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 Melanchthon, Philip. *Commentary on Romans*. trans. Fred Krame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 Robertson, O. Palmer.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2.
- Van Til, Cornelius.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 Westminster Assemb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oki's Publishing. April 16, 2013.

논문투고일: 2020년 02월 19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8일

• 국 문 초 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저작 “新造의 人”을 통해 그의 성화담론을 분석하려는 데 있다. 그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말씀으로 선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다. 이기풍의 성화에 관한 관점은 단지 “新造의 人”에서 발견할 수 있고 1922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게재되었다. 이기풍의 성화담론에 나타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① 법적적 심판→ ② 인간의 타락과 부패→ ③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 ④ 신조의 사람>의 조직화된 구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기풍의 극적인 논증으로서의 성화의 서정(序程)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가 논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새 사람’, *καινός*)의 개념을 다루었으며, ‘내연’(內燃)으로서의 다섯 가지 요소와 ‘외연’(外延)으로서의 다섯 가지 열매라는 실천적 패러다임을 정하고 이 점에 역점을 두어 고찰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산물과 다섯 가지 열매의 상호 조화에 대해 심층 강조점을 두었다. 부연하여, 본 연구자는 향후 이기풍 목사의 성화담론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외연되어 이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신앙과 성화’, ‘그의 가르침과 성화’, ‘그의 헌신적인 삶과 성화’ 등 다양한 연구주제로 연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이기풍, “新造의 人”, 성화, 기독교윤리, 회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
